

급우법구 고해를 건넌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여찌 잡자기를 좋아할까보나, 용맹정진하여 마음을 거두어서 항상 선정에 두라.
 -보살처태경-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태백선원의 가행정진

육바라밀의 한 항목으로 정진 바라밀이 있고 팔정도의 한 덕목으로 정정진(正精進)이 있는 것처럼, 정진이야말로 불교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법에는 열불정진, 참선정진, 기도정진 등의 정진이라는 말이 따라다닌다. 그러나 한국불교가 선불교적 입장에 서면서부터는 좌선을 어떤 모습으로 얼마만큼 하는가에 따라 일상적인 정진과 가행정진(加行精進), 그리고 잠을 자지 않

고 참선하는 용맹정진(勇猛精進)으로 구분하게 되었다. 해인사 선방의 안거기간 중 산문출타로 수행기록 문제와 교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유일의 '가행정진' 도량인 각화사 태백선원에 불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남자들에게 반드시 한할이라도 나와야 한다는 엄원을 가지게 하는 유서깊은 수행도량인 태백선원은 석달반 동안의 안거기간에 하루 2~3시간만 자연서 18시간씩 무섭게 정진하는 이른바 수행처. 보통 용맹정진 기간이 7~15일인 것을 감안할 때, 그 정진력을 가늠할 수 있다. 지난 99년 동안거때부터



▷전국 유일 가행정진 도량 각화사 태백선원

작된 태백선원의 가행정진의 선풍은 수좌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열렬한 선원참구, 각화사 주지 정진스님의 지극한 대중공양이 삼박자를 이루면서 자리잡은 것. 현재 30명의 수좌들이 정진하고 있는 이 선원은 태백산 사고지(史庫地)가 위치할 만큼 산중오지인데다, 산을 연꽃처럼 둘러싸고 있는 지세의 도움으로 '공부할수록 힘이 붙는다'는 것이 수좌들의 정평. 각화사의 남암에 주석하는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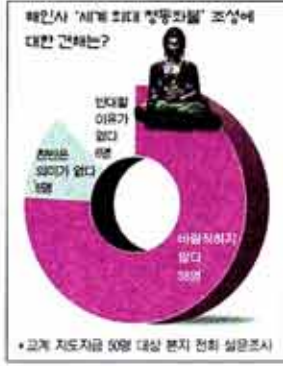
삼스님이 13년간 월조방을 치고 용맹정진하고 있는 것도 수좌들의 발심을 일으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태백선원에 초실이 없는 것도 이런 연유인듯. 이렇게 선원 중의 선원으로 입소문이 나다보니 요즘은 웬만한 구할 남자들이도 입방하기 쉽지 않다. 대부분 10~20년 이력의 수좌들이 이곳에서 득력(得力)하기 위해 스스로 청규를 따르기로 서약한다. 결제 이후에는 산문 불출입과 5신채(宰菜, 부추 파 마늘 달래 생강) 불식, 동산 및 독서 금지, 정진시간 엄수 등을 서약하며 발병 등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1시간이라도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즉시 퇴방조치된다. 이런 철두철미한 원칙이 지켜졌기에 선원의 위상이 날로 높아진 것이라.

김재경(취재 1부 기자)

“논쟁 지양...21세기 불사정립 계기”

本紙, '해인사 대불' 지도자금 50인 전화설문
 ‘세계 최대’엔 반대의견 우세
 “수좌 집단행동 참회” 한목소리

“찬성·반대의 이분법적 판단을 지양하고 21세기 불사의 바람직한 방향 정립 계기로 삼자.” 해인사 대불 조성 논란과 관련, 본지가 중남과 각 단채장 등 불교계 지도자금 위치에 있는 사부대중 50인을 대상으로 긴급 전화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또 세계 최대 불상 건립에는 반대 견해가 우세했으며, 해인사 선방 수좌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참회와 화합을 촉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법문스님(수석사주지) 등 스님 24명, 문명대 교수(명국



해인사 '세계 최대 불상건립' 조성에 대한 견해는?
 *고개 지도자금 50명 대상 본지 전화 설문조사

관련해 응답자의 60% 이상이 인제·복지 불사를 꼽았는데, '시대에 맞는 불사'나 '대중에 맞는 불사' 등 소수 견해도 인제·복지불사와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불사가 이 두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해인사 수좌들의 집단행동으로 야기된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수좌들이 먼저 참회해야 한다' (13명)가 가장 많았으며, '이해와 양보를 통한 화해'를 주문(12명)한 응답자도 상당수에 달했다. '종단의 큰 스님들이 나서야 한다'거나 '보편을 통해 해결하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수좌들과 해인사 측에서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견해가 훨씬 우세했다.

장경 국역사업 등 법보사찰 특성에 맞게 '교육 및 복지불사로 전환' '규모 축소' 등의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특히 21세기 바람직한 불사 방향과 중앙총회에 유시를 내렸다. 또 5년 원로의원 임기가 만료된 원대스님(수석사) 방장을 재선출했다. 원로의원에서는 법제제도 시행의 건과 관련, 차기회의에서 교육원장을 출석시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법제제도 시행에 대한 경과보고를 들기로 했으며, 가산불교문화원장 지관스님에게 '조선시대 고승비문통람'을 발간한 공로로 종정스님 표창패를 수여했다. 김원우 기자



한국불교역사기념관 '원만성취' 기원 1700년 한국 불교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숨쉬는 '역사문화관' 건립봉사가 시작됐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정대은)은 6월 26일 원로의원장법정스님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사대웅전에서 한국불교역사 문화기념관 원만성취를 기원하는 대법회와 총무원 청사앞에서 헌신식을 봉행했다. 사진=고영태 기자

“교육·포교원장 선출”
 조계종 원로회의 유시
 조계종 제17차 원로회의의결 법정이 6월 26일 원로의원 19명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원로회의는 의장장, 포교원장을 조속히 선출하라”고

수습기자 찾습니다

7월 20일까지 인터넷으로만 접수
 부채님 가르침대로 세상을 보는 안. 부채님과 중생을 이어주는 믿음의 가르침을 통해 화를 다하고 있는 현대불교의 내일을 이끌 인재 찾습니다.
 ●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모집 부문 모집 인원 응시자격 전형일차
 수습 기자 약간명 (1)해고신자 (2)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2001년 8월 졸업예정자 (3)영어능력 시험은 1974년 1월 1일 이후 생일이면 남자 또는 여자는 197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1차 시험 필기 면접
 ● 접수기간 : 2001년 7월 20일(금) 오후 5시까지
 ● 접수방법
 본사 인터넷신문인 부대뉴스(http://www.buddhanews.com) 또는 본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응시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 성적 증명서를 시험당일에 제출하십시오.
 ● 1차 합격자 발표: 개별정보 및 인터넷 공고. 문의전화 02-737-8881

현대불교신문사

‘직지’ 세계기록유산 등재 확정

유네스코 자문회의 “사료적 가치” 높이 평가
 1377년 창주 흥덕사에서 발견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訣, 이하 직지)>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자문회의는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창주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제54차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신청한 <직지>와 <승정원일기>를 비롯해 독일의 <구텐베르크 성경> 등 21점을 세계기록유산 등재 목록으로 권고기로 결정했다. 당초 <직지>는 그 소유권을 프랑스가 갖고 있어 다수의 논란이 예상됐지만, 심의위원들이 <직지>의 사료적 가치를 높게 평가해 의외로 쉽게 세계기록유산으로 결정됐다. 이들 기록물에 대한 세계기록유산 등재 최종 결정은 올 연말에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공식 발표하는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김여수는 “현재까지 자문회의의 권고가 반례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기록물들은 세계기록 유산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의 <직지>와 <승정원 일기>를 비롯, 지난 1997년 등재된 <훈민정음해례본>과 <조선왕조실록> 등 총 4점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한편, ‘직지’는 고려말 경한스님이 역대조사들의 계승, 법어, 설법 등에서 선의요체에 관한 내용을 뽑아 엮은 책이다. 이밖에 지정된 ‘직지’는 1377년 7월 창주 흥덕사에서 발간한 하권이다. 이 책은 구텐베르크 성경보다 80년이나 앞서 금속활자로 인쇄돼 지난 72년 파리국제도서전에서 현존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으로 인정받았다. 권형진 기자

부다피아 어린이 캠프 (사회) 22면

장군족비
 ◇범어사 새 주지 선출 둘러싸고 갈등 심화, 세속에 모범이 돼야 할 절집에서도 원로들의 권위마저 버릴 줄로 (22면)
 ◇모 정치인 선친 묘 왕기(王氣)가 서린 곳으로 이장, 이 나라 정치 지도자에게 나라 는 없다. 정권욕 만일을 뿐. (92면)
 ◇고려시대 조성 3층 석탑 복구를 틈탄 도난범들의 손아귀로, 도난범들의 범죄 의욕을 부추기는 비지정 문화재 대책 마련 시급. (22면)
 ◇절로 가는 불제자를 가로막고 입장료 행기는 청량산 도립공원, 산적에게 보따리 털려도 이보다는 덜 황당할 듯. (23면)

불교 TV가 정성들여 준비한 삼베명품전

孝道佛事

1,400,000원

극락왕생복 특별할인가 (남·여) 각 1,120,000원
 스님들의 수의도 짓고 있습니다.

삼베양말 특별할인가 (남·여) 각 1set(6족) 20,000원

삼베목수건 특별할인가 1개 10,000원 / 크기 24cm(너비) x 262cm(길이)

주문전화(불교TV사업부) 02-3270-3366-7